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생각해 볼

가정 세미나 개최

5월 12일(금), 19일(금), 27일(토) 3일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가정이 울바로 서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구체적인 방법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모색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일(금)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첫날의 강의는 여성과 가정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9일(금)에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마지막 날인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여성,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의 문제 등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들을 찾아보고 현실적인

27일(토)에는 부부가 한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을 가지는데 20대 ~ 50대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날의 강의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강의에 좀더 많은 성도가 참석할 수 있도록 금요일인 12일과 19일은 매 주 가지는 다락방모임을 다락방별로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연합으로 가지도록 하였다.

가정세미나의 강사는 심상권 목사로 한국 기독교 상담문화연구소 소장이며, 현재 토요일마다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협동목사로 수고하고 있다.

때	1995년 5월 12일(금) 오전 10시 - 12시	1995년 5월 19일(금) 오전 10시 - 12시	1995년 5월 27일(토) 오후 7시 - 9시
구분	제 1 강	제 2 강	제 3 강
제목	행복한 여성과 가정, 그리고 신앙 (마태복음 22장 39절)	자녀교육 - 행복한 부모와 자녀 (에베소서 6장 4절)	부부간의 한마음 워크숍 (에베소서 5장 33절)
내용	여성의 자화상 여성의 열등의식 여성의 내적 상처 여성의 내적 치유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자녀 교육은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의 자긍심을 높여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가능하다.	부부간의 마음 알기 부부간의 마음 알리기 부부간의 마음 풀기 부부간의 마음 주기 부부간의 한마음 되기
대상	여자 성도	자녀를 가진 성도	20 ~ 50대 부부(반드시 부부동반해야 함)
강사	심상권 목사	심상권 목사	심상권 목사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시 4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4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4월의 새가족 *

- 서성신 경선아 최선자 김영수 박정화
 - 김신승 김예은 이광우 정지은 윤광섭
 - 이수확 신정호 신정욱 김점수 윤치호
 - 허옥숙 윤혜란 윤혜영 서석순 문남순
 - 이준태 김진경 전일구 박지순 정상현
 - 정운선 정유나 지기영
-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1년 전, 이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 ◀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사하던 주간(1994년 4월 25일-30일), 그리고
 - ▼ 지금의 처소로 입당던 날(1994년 5월 1일), 만 1년이 되었습니다.
- 예기치 못했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새 일을 이루리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 때의 마음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세기
강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한 것

(22장 13 ~ 14절)

이종운 목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던 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불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적어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8:58)고 하셨습니다.

1.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수양을 보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불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위에는 괴롭고 슬픈 일이 많고 기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변하는 기쁨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된 수양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인한 기쁨입니다.

2. 아브라함은 행복한 아들이로서 아들의 부활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비록 순종은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담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삭 대신 바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펄펄 뛰고 싶으리만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은혜에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며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며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을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부활의 약속을 다 들었으면서도, 부활의 소식을 접했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모두 부활하시어 함께 계신 주님을 뒤늦게야 발견했습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실감하며 얼마만큼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여러 곳에서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욥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고 고백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에 사망의 고통만을 경험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죽을 아들이 돌아온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3.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인생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죄와 고통의 명예를 맨 인생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근심이 인생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5-57)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죽음의 권세에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보살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보고 알았노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활의 신앙을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서로 존중히 여기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대강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있으나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려면 약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세의 과거는 살인자의 낙인이 찍힌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나 허점을 보시지 않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지도자가 될 것을 보시어 그를 불붙지 않는 가시나무 사이에서 불러내신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이들이 큰 일은 꿈꾸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이웃을 찾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김치세미나에 붙여

따뜻한 마음을 조미료로하고 기도로 잘 익혀서 최고의 감칠맛나는 김치(김치?)를

김 대 호 (장로, 제 6차 김치세미나 위원장)

반만년 역사 속에서 사랑받아온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 - . 해마다 5월에 세계 교회를 향해 영적인 입맛을 돋우어주고자 열리는 것이 김치 세미나이다. 올해 여섯번째를 맞는 '김치' 잔치상, 그 내용과 특성이 가히 국제적이다.

우리 교회 부설기관인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차원 높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교회 온 성도의 관심과 애너지가 집중되고 기도로 익혀지는 김치의 맛은 일품이 될 것이다.

우리의 독특한 김치는 그 맛을 내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영역권이나 대상국의 차별없는 선택이다. 동구권 일곱개국을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 등을 초청했으며 앞으로도 북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을 찾아내어 북음을 위한 목회자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는, 그리 크지도 않은 하나의 개교회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다.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기도와 힘을 모아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

셋째는, 세미나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영적이 고 생명 중심이라는 데에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 절제되고 밀도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감칠맛을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으로 참가했던 나라들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감사의 소식이 답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비록 작게 보이고 지구촌 한 구석에서 행하는 일로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곧 뉴스이고 빅 이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올해는 좀 더 맛있는 김치의 맛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북음을 위한 열정과 타국의 형제들맞이할 따뜻한 마음을 조미료로 하고 기도로 잘 익혀서 최고의 김치맛으로 지구촌 교회들의 입맛을 돋구워주자.



제6차 김치세미나를 준비하며 ⑧

파키스탄의 북음화를 저해하는 "샤리아"법이 철폐되도록

파키스탄 교회의 성장을 헤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선지자(모하메드)를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샤리아법이다. 이 법은 이 나라의 헌법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도하다가 투옥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다. 교회의 건물들이 폭도들에 의하여 파괴되며,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리스도인들의 재산과 교회에 대한 파괴, 구타, 심지어 살인 행위까지도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1988년 지아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군사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폭력과 살인 위협, 외국인 납치, 정치의 불안정은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교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은 파키스탄의 교회에 큰 용기를 줄 것이다.

제 6차 김치세미나를 준비하며 파키스탄북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 ① 파키스탄의 법정에서 샤리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 ② 샤리아 법이 철폐되도록
- ③ 국회에 진출해 있는 기독교 의원들을 위해
- ④ 파키스탄의 교회 내의 개혁과 성장, 그리고 영적 부흥을 위하여
- 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 ⑥ 북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성도들을 위하여
- ⑦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때문에 사회 활동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 ⑧ 파키스탄 교회 내에 바른 신학이 정립되도록
- ⑨ 북음적인 선교 기관들의 협력사역을 위하여
- ⑩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K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 항상 힘이 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는 무부성괴사(뺨가 썩어들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그의 병은 16세때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손톱은 뿌리부터 썩어 무서운 통증이 날마다 계속 되었으며 이빨은 흔들거리며 하나 둘씩 빠져나갔다. 스무살이 되었을 때 그의 체중은 22Kg까지 떨어졌으며 혈압은 60 ~ 30정도, 수혈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원망과 저주로 고통한 투병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H라는 사람과의 만남 이후였다.

"아니, 온 몸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손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눈은 잘보이는가?"
"귀는 잘 들리는가?"
.....

H씨의 질문은 연달아 튀어나왔다.
"걱정할 것 없소. 당신 몸은 90%가 정상이지 않소!"

온 몸이 아프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픈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대발견이 K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썩어가던 손톱이 새로 돌아나고 머리카락도 다시 나고 극심하던 통증도 점차 약화되었다.

"방법은 언제나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김 영 경 (청년부)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난치병이 활동을 중지한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때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에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의 무게에 눌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엔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이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이라도 멀리서 보면 엄지손가락 하나로도 그것을 내 시야에서 가릴 수 있다. 오히려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산의 지형이나 요건, 주변 산들과의 거리와 관계, 산세 등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사랑부 - 학부모, 교우초청 특강

오늘 2시 30분, 별관에서
『말겨진 달란트 찾아내기』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사랑부 집회시간에 학부모 및 교우 초청 특강을 가진다. 『말겨진 달란트 찾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장애인 부모모임회 상임이사인 이청자 권사가 강의한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변환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교육방법을 모색하게 될 이번 특강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고등부 - 다음 주, 선교특강

김치세미나에 앞서 선교비전 새로이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시작되기에 앞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현실에 대해 알고 선교비전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 다음 주일(5월 7일) 집회시간(오전11시)에 고등부실에서 전도 특강을 가진다. 강사는 전 파키스탄 선교사였던 박종상 전도사로 그가 받은 선교의 사명과 현장체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심있는 성도들이 동참하여 김치 신학세미나와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복음화를 위해, 젊은이들의 선교비전과 헌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청년부 - 한국기독교사 특강

오후 2시부터, 2층예배실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일년 반 가량 공부해 오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공부를 마치고 지난 주일에 책거리를 했다. 오늘부터는 한국기독교사를 공부하기로 했다. 강사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이며 현재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이만열 전도사로, 광복 5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래, 기독교의 개화운동,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국가, 반성과 과제 등을 심도있게 다룰 몇주간의 특강을 통해 기독교 역사관을 새롭게 제시해 줄 것이다. 집회는 주일 오후 2시부터 2층예배실에서 가지며 이 특강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데반회

교회안전 점검 및 청소년에 선물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교회 건물의 안전점검 및 대청소를 하고 있다. 현재 옥탑층에 마련되어 있는 만남의 공간은 지난 달 스테반회의 작품이기도 한데, 그곳은 월요일마다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권사님들이 모여 김밥을 싸는 곳이기도 하며, 주일에는 각종 교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치부 -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기

다음 주일엔 노래극『솔로몬의 지혜』공연

오늘,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기 대회를 가진다. 유치부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믿음반·소망반 어린이들은 사도신경을, 사랑반 어린이들은 주기도문을 외운다. 어린이 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노래극『솔로몬의 지혜』를 공연할 예정이다. 유치부 집회는 오전 9시와 11시, 별관.

초등부 - 뮤지컬 공연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받았던 은혜들을 모아 찬양과 연극으로 꾸며 지난 주일 집회시간에 공연하였다. 올해 부활절은 지났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일년 내내, 그리고 평생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가족부의 새가족을 위한 교리과정

새가족부에서는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제 1주에는 우리 교회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며, 제2주에는 기도생활, 제 3주에는 말씀생활, 제 4주에는 전도의 생활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한다. 성도의 교제, 봉사과 헌신에 대한 제 5주의 교육까지 마친 새가족은 수료식 후에, 해당되는 교회학교나 선교회·전도회 등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된다.

* 5월의 교회 행사 *

- 7일(주일) / 어린이 주일
- 매주 월요일 / 목회자 신학세미나
- 12일(금) / 가정세미나(행복한 여성과 가정, 그리고 신앙)
- 14일(주일) / 어버이 주일
- 19일(금) / 가정세미나(행복한 부모와 자녀)
- 27일(토) / 가정세미나(부부간의 한마음 워크숍)
- 28일(주일) / 새가족 환영회
- 29일(월) / 파키스탄 목회자 도착
- 30일(화) / 방글라데시 목회자 도착
- 30일(화) /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 시작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월)은 휴강 ***

■ 교우 동정 ■

이남용 성도는 4월 27일, 흑석동에 『성모 종합화장품』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815 - 8530)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강』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새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5. 대형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